

다크일행은 드래곤과 타이탄들의 격전이 벌어지자 숨소리까지 죽여 가며 그 장대한 싸움을 구경했다. 약간의 볼거리는 있었지만 그래도 그 어린 드래곤은 드래곤이란 이름 값도 제대로 못 한 채 고깃덩이가 되어 버렸다. 정말 싱거운 싸움이라고 할 수밖에 없었다. 두 눈을 초롱초롱하게 빛내며 열심히 구경하던 다크가 드래곤이 쓰러져 버리자 나지막한 목소리로 물었다.

"백색 유니콘이 저주받은 문장이라니 무슨 말이야?"

파시르는 작게 한숨을 쉬더니 천천히 말문을 열었다. 그의 얼굴은 약간의 두려움과 원망, 절망 등 여러 가지 색채를 띠며 순간순간 변하고 있었다.

"나는 옛날 론드바르 제국의 기사였다. 아직도 눈을 감으면 기억이 나지. 론드바르 최후의 날. 화염이 충천하던 왕궁, 비명을 지르며 뛰어가던 시민들... 나에게 힘이 없다는 것이 그렇게도 원망스러웠던 적은 없었다. 시민들을 학살하고, 도시를 파괴하던 그 문장. 하얀 유니콘의 문장을 절대로 잊을 수 없어."

파시르의 종얼거리는 말만으로는 도대체 유니콘을 문장으로 쓰는 제국이 어딘지 알 수 없었기에, 분위기가 좀 그렇기는 했지만 지미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물었다.

"유니콘을 문장으로 쓰는 나라가 어디데요?"

갑작스런 지미의 질문에 정신을 차린 파시르는 쓴웃음을 잠시 머금더니 내뱉듯 말했다.

"레니아 근위 기사단의 문장이다. 저 강대한 크루마 제국의..."

"레니아 근위 기사단이라구요? 그렇다면 방금 그 타이탄들은 근위 타이탄이란 말입니까?"

놀라서 묻는 지미의 얼굴을 힐끗 쳐다 본 파시르는 다시 드래곤이 쓰러져 있는 곳으로 시선을 돌렸다.

"세 대는 카마리에야. 들리는 소문으로는 출력이 1.5나 되는 괴물이라고 하더군. 그런데... 방금 드래곤의 머리를 날려 버린 그 거대한 타이탄을 잘 모르겠어. 크루마의 신형 타이탄인가?"

원체 과묵했기에 잘 몰랐지만 얼핏 드러나는 파시르의 유식함에 감탄했다는 듯이 라빈이 파시르에게 바짝 다가섰다.

"타이탄에 대해 잘 아시는군요. 시간 있을 때 좀 가르쳐 주세요."

라빈의 말에 파시르는 옅은 미소를 지었다.

"사실 너는 그걸 알 필요가 없어. 나같이 타이탄을 조종한다면... 아니군, 그 녀석도 죽어 버렸으니 이제는 나도 알 필요는 없어졌군. 타이탄을 조종하는 사람은 강한 타이탄의 목록과 유명한 기사단의 문장은 알아두어야 장수하는 데 보탬이 되지. 특히 나 같은 용병들한테는 말이야. 그것 하나 가지고 목숨이 왔다갔다 하거든. 하지만 나한테 타이탄이 없다면 얘기는 달라져. 타이탄이 나타나면 무조건 도망치는 게 최고지."

"안에는 보석은 거의 없고, 마법 도구 약간과 책뿐입니다, 대장."

"마리나는?"

"마리나 경은 마법 책을 보신다고 정신이 없던데요?"

스펜의 보고를 듣고 잠시 생각하던 타론이 명령했다.

"아더, 스펀! 너희들은 타이탄을 불러내어 저 시체에서 비늘을 떼어 내라."

"예!"

아더와 스펀이 다시 자신의 타이탄들을 불러내어 탑승하고 있을 때 숲 속에서 두 사람이...아니, 한 사람과 한 드워프가 말들을 끌고 나타났다. 파이어해머는 쓰러져 있는 드래곤을 보면서 만면에 미소를 짓더니 드래곤 쪽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한 사람, 베티 도니안 사제는 타론에게로 다가갔다. 그녀는 드래곤의 큰 덩치를 보며 놀랍다는 듯 말했다.

"이제 끝난 겁니까?"

"예."

"엄청나게 큰데 정말 빨리 끝내셨군요. 과연 레디아의 이름이 부끄럽지 않으신 분입니다."

"과찬이십니다. 드래곤이 어린 데다가 경험도 없었던 덕분이죠."

"부상자는 없습니까?"

사제의 아름다운 얼굴을 힐끗 바라봤지만, 실례라고 생각했는지 곧 시선을 드래곤 쪽으로 돌린 타론은 고개를 저었다.

"이 정도 싸움에 부상자가 생길 수는 없죠."

"정말 다행이네요. 그런데..."

좌우를 쪽 둘러보면서 베틀 사제가 말했다. 베틀 사제의 시선은 멀리 떨어진 곳에 반쯤  
녹은 채 쓰러져 있는 두 대의 타이탄에 머물러 있었다.

"다른 동료분들은...?"

"아마 모두들 죽었을 겁니다."

기사였기에 약간의 죄책감을 머금은 그의 어조 때문인지, 베틀 사제는 살짝 무릎을 꿇고  
기도를 올렸다. 죽은 자를 위해 기도하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어려 있었다. 생판 모르는  
사람들도 아니었고, 몇 주 정도였지만 함께 여행한 동료들이었기에 가볍게 여길 수가 없었  
다.

"달의 여신 아르테미스시여, 오늘 흉악한 몬스터와 싸우다가 죽은 아름다운 영혼들이 있  
습니다. 부디 그들을 바른 길로 안내해 주시기를 비읍니다."

죽은 자에 대해 생각해 주는 인물은 베틀 사제 한 사람이었다. 마법사는 드래곤의 마법  
서적에, 그리고 나머지는 드래곤의 사체에 관심을 쏟을 뿐이었다.

만약 그들이 보통의 파티처럼 우정으로 맺어져 있었다면, 혹시나 하는 마음에 생존자가  
있는지 숲 속을 뒤졌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숲 속을 뒤지는 귀찮은 작업을 생략했고, 또  
살아 있다면 자신의 몫을 챙기기 위해 튀어나왔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숲 속에서는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고 그들은 당연히 '미끼'로 쓴 동료들이 모두 죽었다고 간단하게 결론  
을 내렸던 것이다.

파이어해머의 지시에 따라 드래곤은 천천히 분해되었다. 파이어해머가 끌고 온 말에는 금  
속으로 된 용기들이 여러 개 실려 있었는데, 그 통마다 드래곤의 살과 피가 가득 담겨졌다.  
드래곤의 피와 살은 마법을 통해 만들어지는 합성 생물인 키메라의 귀중한 재료가 되기 때  
문이었다.

드래곤의 피와 살은 잘 썩지 않았기에 이것을 재빨리 본국으로 보낼 필요는 없었다. 하지  
만 아무리 부패에 강한 드래곤의 피와 살이라고 해도 한 달 정도밖에 버티지 못하기에, 마  
리나가 동굴에서 나오면 곧 공간 이동 시켜 본국으로 수송할 계획이었다. 그와는 달리 드래  
곤의 뼈는 아무리 가볍다고 해도 한 마리의 드래곤을 분해한 뼈와 비늘은 공간 이동 마법  
따위로 수송할 만큼 만만한 양이 아니었다. 그렇기에 그들은 사냥에 앞서 수송로를 철저히

연구해 놓았다.

그들의 시체 분해 작업은 식사 때문에 중단되었다. 아무리 일을 하려고 해도 배가 고프면 힘을 쓸 수 없다는 것은 불변의 진리였다. 그렇기에 베티 사제가 요리를 시작하자, 아더와 스펜은 작업을 멈추고 드래곤과 싸우는 동안 쓰러지거나 반쯤 타버린 나무들을 적당히 잘라서 가져왔다. 샤프란은 말에서 요리도구와 식료품을 가져다 주었다. 큼직한 휴대용 냄비에서 스프가 끓고, 소금에 절인 돼지고기가 익어가자 그 냄새는 바람을 타고 멀리멀리 퍼졌다.

꼬르르르르륵...

배가 고프 줄 몰랐더라도 막상 고소한 냄새가 풍겨 오면 참기 힘들다. 지미의 배에서 밥 달라는 아우성이 들려 오자 다크는 지미에게도 힐끗 시선을 돌렸다. 지미는 주책맞은 배 덕분에 얼굴이 약간 붉어졌다. 다크는 어쩔 수 없다는 듯 알게 한숨을 쉬었다.

"지미, 라빈."

"예?"

"너희는 석궁 가지고 가서 아무거나 잡아다가 요리해라. 그리고 파시르는 저 녀석들 좀 도와 주고."

"같이... 안 가실 겁니까? 잘못하면 서로 길이 어긋난다구요."

"괜찮아. 한 시간쯤 후에 너희를 따라가겠다. 나는 여기서 조금 더 감시를 할 꺼야."

"알겠습니다."

은연 중에 상당한 계급 차를 드러내는 이 둘을 파시르는 번갈아 쳐다봤다. 이제 더 이상 눈치 볼 것이 없기에 공손하게 말하는 지미, 그리고 대놓고 하대하는 다크. 누가 봐도 동료라기보다는 주종이었다. 파시르는 이상하게 생각은 했지만 오랜 용병 생활의 습성상 상대가 말해 주지 않으니 구태여 물어 보지는 않았다. 알아서 좋은 게 있고 몰라서 득 되는 것도 있기 때문이었다.

한 시간쯤 타론 패거리를 감시하던 다크는 더 이상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일행과 합류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섰다. 다크는 자신들을 드래곤이 뿜어 내는 녹색 가스

의 희생물로 써 먹은 저 녀석들에게 꽤나 감정이 있었지만, 아직은 복수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았다.

드래곤과의 싸움에서 자신의 타이탄과 함께 생명을 끝마친 네르만이 여기까지 오면서 뭔가 흔적을 남기는 모습을 본 것만 스무 번은 족히 되었다. 처음에 네르만이 무엇인가를 숨기는 걸 우연히 보고 그를 꾸준히 감시했지만, 미처 보지 못한 것도 있었을 것이다.

다크는 네르만이 흔적을 남기면서 기다리던 자들이 누군지 궁금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도 나타나지 않았고, 다크는 오늘 저녁때쯤이면 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일행의 발자국을 쫓았다.

과거 살수 생활의 경험 덕에 다크는 대단히 빠른 속도로 일행의 흔적을 따라 갈 수 있었다. 한 시간쯤 지났으니 사냥을 해서 가죽을 벗기고, 불을 피워 고기를 익혀 놓고도 남을 시간이었다. 물론 사냥감을 30분 이내에 사냥해야 한다는 단서가 붙기는 하지만 말이다.

동료들을 추적해 들어가던 다크는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발자국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어느 사이에 일행의 발자국, 그러니까 지미, 라빈, 파시르가 남긴 발자국 곁에 누군지 모르는 네 번째 인물의 발자국이 끼여들었다는 사실을 발견했던 것이다.

다크가 그것을 조금 뒤늦게 눈치챈 것은 그들의 신발 바닥이 모두 똑같았기 때문이었다. 보통 여행할 때 신는 신발은 두터운 가죽을 네다섯 겹 깔아서 만든다. 귀족들은 거기에 모양을 내고 뒷굽을 붙이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신는 신발은 그렇지 않다.

또 대단한 장거리를 도보로 여행할 때에는 신발 바닥에 얇은 철판이나 구리판을 덧대기도 하고 더 철저히 준비를 한다면 말굽에 붙이는 편자를 박기도 하지만, 일행들은 모두 말을 타고 왔기에 철판을 댄 신발을 신지는 않았다.

새로 끼어든 발자국은 그 크기로 봤을 때는 남자. 그것도 6척 반(1미터 90센티)은 됨직한 거구의 사내였다. 그리고 발가락 부위에 무게가 걸린 것이 높은 경지의 무예를 수련한 인물임을 알 수 있었다. 언제든 자신의 몸을 날릴 수 있도록 준비된 무사... 보폭이 매우 일정한 것만 봐도 그 사실을 잘 알 수 있었다.

그의 발에 밟힌 풀이 꺾여 있는 각도나 발자국에 남아 있는 수분 등으로 추측하건대, 지나간 시간은 3각(45분) 정도? 일행이 지나갔음직한 시간과 비슷한 걸 보면 뒤에서 몰래 따

라가는 모양이었다. 그런데도 일행의 발자국에 그 어떤 반응도 없는 것을 보면 그들은 추격당한다는 사실 자체도 눈치채지 못한 게 분명했다.

물론 지미와 라빈만이라면 그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파시르는 얘기가 다르다. 용병 중에서도 그레듀에이트 급이 아닌가? 그가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면? 거기까지 생각한 다크는 재빨리 자신이 낼 수 있는 최대의 속도로 일행을 찾아 달렸다.

다크는 그로부터 10분도 되지 않아 일행을 찾아냈다. 일행들을 위험을 눈치채지 못한 채 느긋하게 뭔가를 불에 굽고 있었다. 그러다가 저쪽에서 다크가 땅도 밟지도 않고 초상비(풀 위를 밟으며 달리는 경신술)의 기술로 엄청나게 빨리 다가오자 놀란 눈으로 멍하니 쳐다봤다. 다크는 귀신이라도 본 듯 얼이 빠진 세 사람을 무시하고 어둡침침한 숲 속을 향해 외쳤다.

"거기 숨어 있는 녀석! 빨리 튀어 나왔!"

그 말에 일행들은 더욱 멍해졌다. 갑자기 미쳤나? 하고 생각했겠지만 다크가 바라보던 방향에서 진짜 사람이 천천히 걸어 나오는 데는 할말이 없었다.

숲 속에서 나온 사람은 도대체가 이런 곳에서 만날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 인물이었다. 검을 차고는 있었지만 갑옷 따위는 아예 입지도 않았고, 그저 간편한 여행복만을 갖춰 입은 30대 후반의 남자였다. 그는 약간 붉은색이 도는 머리카락을 어깨에 닿을 정도로 길게 길렀는데, 그 머리카락을 슬쩍 뒤로 넘기면서 걸어왔다. 다시 말해서 그 녀석은 한 몇 시간 산책 나온 것 같은 모습으로 이 깊은 산 속에서 나타났다는 뜻이었다.

그 남자는 은근한 살기를 내뿜는 소녀를 흥미로운 눈으로 바라보더니 느긋하게 입을 열었다. 그는 풀 위를 달려오는 소녀의 놀라운 기술과 자신의 위치를 단번에 포착해 내는 예리함에도 별로 위축되지 않았다. 그의 눈은 오히려 호기심으로 반짝이고 있었던 것이다.

"당신은 누구요?"

하지만 소녀는 그를 향해 싸늘한 눈길만을 던질 뿐 대답은 하지 않았다. 이때쯤 정신을 수습한 다크의 동료들이 검의 손잡이에 손을 가져갔지만 그 남자의 말에 동작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그러지 마세요. 지금 저는 살인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태껏 자신들이 기척조차 파악하지 못했던 것이나 다크의 놀라운 기술을 보고도 위축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일행은 그가 뭔가 단단히 믿는 구석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일단은 실력 행사라는 단순한 수단은 최후에 쓰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는 서로의 눈치를 보면서 검 쪽으로 가져갔던 손에서 힘을 뺐다.

게다가 지금은 검을 꺼내는 일 말고도 할 일이 많았다. 지미는 검 손잡이에서 손을 떼자마자 불에 굽던 고기를 다시 돌렸다. 그리고 라빈은 한 마리 더 잡아 놓은, 토끼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크기는 좀더 크고 귀는 작은 티칸의 가죽을 벗기기 시작했다.

그 남자는 일행 중에서 가장 실력이 떨어지는 두 사내가 싸우지 말자는 자신의 말에 뒷일은 생각하지 않고 바로 처음의 일에 열중하자 약간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이것은 자신의 갑작스런 등장이 그들에게 아무런 위협을 주지 못했다는 뜻과 같았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눈앞의 소녀를 그만큼 믿는다는 뜻이었고, 사실 그의 짐작으로도 소녀의 실력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게 아니었다.

"저는 수상한 사람이 아닙니다. 제 이름은 제임스. 코린트의 기사입니다."

당당하게 신분을 밝혔는 데도 표정의 변화가 없는 소녀를 흥미롭게 바라보더니 그는 말을 이었다.

"당신들은 지금 위에서 드래곤의 사체를 분해하는 녀석들과 동행인가요?"

"방금 전까지 그랬지만 지금은 아니다."

아주 당연하다는 듯 자신을 향해 하대하는 것으로 보아 소녀는 상당한 직위, 또는 신분을 가지고 있는 모양이었다.

"그렇다면 이곳을 빨리 떠나십시오. 조만간에 이곳은 전쟁터가 될테니까요."

"썩은 시체를 찾아 모이는 까마귀들의?"

"독수리들의!"

까마귀에서 독수리로 등급을 올리려고 용을 쓰는 그의 대꾸를 듣고 소녀는 피식 웃었다.

"독수리도 덩치만 조금 더 클 뿐, 썩은 시체를 향해 모여 드는 것은 마찬가지이지. 나는 조금 더 있다가 갈 테니까 참견하지 말도록."

소녀는 마지막 말을 내뱉고는 이제 두 번째 장만한 티칸까지 굽기 시작한 불 가에 앉았

다. 그 남자는 조심스럽게 다시 말을 걸었다. 뭔가 어떤 구실을 붙여서라도 좀더 얘기를 나눠 보고 싶은 상대였기 때문이다.

"참견하지 않을 테니 고기나 좀 나눠 주시겠습니까? 저도 배가 고프군요."

"고기는 충분하니까 거기 앉아."

일행은 먼저 익은 티칸부터 적당히 잘라서 뜯어 먹기 시작했다. 모두 배가 고파 음식에 정신이 팔린 탓도 있었지만, 이 미지의 방문객을 의식한 탓인지 대화는 거의 오가지 않았다. 하지만 제임스라는 인물은 열심히 먹으면서도 소녀에 대한 면밀한 관찰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나이는 어려 보였지만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실력. 겨우 열 여섯 살이 될까말까 해 보이는 소녀가 그레듀에이트 중에서도 높은 수련을 쌓은 인물들만이 가능한 풀을 밟고 달리는 고도의 기술을 사용하고, 또 자신의 위치를 간단히 포착해 냈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았다.

제임스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소녀를 힐끔거리며 이것저것 생각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소녀의 옷차림만 봐서는 마법사 같기도 했다. 또 너무나 아름다운 외모를 보면 신관 같기도 했다. 하지만 그의 상식으로는 아무리 근력 증가 따위의 신성 마법을 쓴다 해도 풀 위를 뛰어 다니는 데는 무리가 있었다.

또 마법사라 한다면 풀 위를 뛰어 다니는 귀찮은 방법보다는 비행마법을 사용해서 날아왔을 것이다. 또한 자신의 몸 속에 축적된 마나의 기운을 읽었을 테고, 그렇다면 감히 이렇게 당차게 나올 수는 없었으리라.

소녀는 단순한 모양의 검은 착용했으며, 셔츠에 스웨터 정도의 간편한 옷차림, 짙은 갈색 바지, 하지만 신발은 뒷굽이 낮은 매우 고급스런 구두였다.

'귀족일까? 아니면 왕족? 아니면 또 뭐가 남아 있지? 축적된 마나의 기운이 느껴지지 않는 걸 보면 검은 그냥 모양으로 차고 다니는 것도 같은데... 도대체 알 수가 없군.'

제임스가 의문에 가득 찬 시선을 보내고 있을 때, 적당히 고기를 뜯어 먹은 소녀는 손수건을 꺼내 쓱쓱 손을 닦더니 나직이 물었다.

"네르만이 남겨 놓은 표식을 따라 왔나?"



어느 새 그녀의 어조는 투명스러움이 사라지고 꽤 많고 고운 음성으로 변해 있었다. 하지만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머리 속에서 이해되는 순간 제임스는 당황했다.

"잘 아시는군요."

"혼자는 아닌 것 같은데? 몇 명이나 왔지?"

제임스는 빙긋이 미소지었다.

'역시 이 아이도 코린트라는 이름의 위력을 알기는 아는 모양이군.'

사실 코린트라면 자타가 공인하는 최강의 제국. 한 명의 기사만을 드래곤 사체 강탈 작전에 투입했을 리는 없었다. 드래곤 사체는 싸구려도 아니었고, 또 그 무게도 엄청났다. 그걸 가져가려면 당연히 엄청난 인력이 필요했다.

"쓸만한 부하 몇 명을 데려왔습니다."

"언제 공격할거지?"

"예정대로라면 내일 아침이 될 겁니다. 아침밥 먹고 나서 식후 운동겸 한판 할까 생각 중이죠."

제임스의 대답에 소녀는 피식 웃었다.

"대단한 자신감이군. 하지만 자신감이 지나치면 만용이 된다는 생각은 하지 않나?"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저는 제 부하들과 저의 실력을 믿을 뿐이죠. 제 부하들은 그렇게 약하지 않거든요."

제임스를 향해 뭐라고 말할 듯하던 다크는 갑자기 하늘을 쳐다봤다. 제임스도 그 시선을 뒤따랐고, 다크와 제임스가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하늘 쪽으로 시선을 돌리자 일행들도 무슨 일인가 해서 일제히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원체 짙게 우거진 숲이라서 거대한 나무들에 가려 별빛도 거의 보기 힘들었다. 이때 나뭇가지를 뚫고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인물이 있었다. 정통적인 마법사 복장 그대로 나타난 것을 보면 꽤나 자신과 일행들의 실력, 또는 뒷배경에 자신이 있는 모양이었다. 감히 아르곤에서 마법사의 정식 복장을 그대로 드러냈으니 말이다.

새로 나타난 마법사는 60세쯤 되어 보이는 쭉그렁한 얼굴을 가진 남자였다. 그는 땅에 발을 딛자마자 제임스를 향해 정중하게 인사를 했다. 그러나 제임스는 약간 못마땅하다는 어

조였다.

"무슨 일이나? 아직 집결 시간이 안 되었을 텐데?"

마법사 영감은 신듯한 깔끄러운 목소리로 천천히 말했다.

"의외의 사건이 벌어져서 대장을 찾았습니다. 새로운 적이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신지?"

"적의 규모는?"

"일단 합류하셔서 작전을 의논하시는 편이..."

제임스는 그 말을 듣더니 다크 일행을 힐끗 바라보았다.

"저들은 상관없으니까 말하라."

제임스는 여기에 조금 더 머무르면서 상대에 대해 탐색도 하고 싶었고, 또 상대에게 약간의 정보를 누설해 그에 따른 반응도 살펴보고 싶었다.

"아르곤의 성기사단입니다. 대략 백여 명 정도로 추정되며, 타이탄의 수는 알 수 없습니다."

"백 명? 아르곤에서는 어떻게 냄새를 맡았지? 알 수가 없군."

노마법사의 보고를 듣고는 약간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는 제임스를 보더니 소녀는 슬쩍 웃었다.

"너희도 알고 왔는데, 또 다른 첩자가 있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은 없지."

제임스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군요. 그럼 그 첩자는 누구죠? 당신인가요?"

농담조로 제임스가 말하자 다크는 살짝 미소를 지었다.

"나일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겠군요. 하지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왜?"

"만약 당신의 자신감이 겨우 성기사 백 명에게서 오는 것이라면, 내일 아침에 뜨는 해를 보실 수 없을 테니까요. 저는 당신이 그런 말을 해서 스스로의 생명을 단축시킬 정도로 어리석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좋을 대로 생각해. 그런데 언제 싸울 건지는 나한테 꼭 가르쳐 줘야해."

"왜 그러시나요?"

"그야 가장 좋은 볼거리는 남의 집 불 구경하고 싸움 구경이라고 하잖아? 당연한 거지."

소녀의 대답에 제임스는 황당하다는 표정이 되었다.

"알겠습니다, 레이디. 하지만 지금 모여드는 독수리 떼의 숫자가 숫자인 만큼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을 텐데요?"

"그건 걱정할 필요 없어. 까마귀 떼가 좀 모여 봐야 별 수 있어? 그리고 레이디란 소리는 뻘! 나는 그 말만 들으면 그 소리를 내뿜은 놈의 목을 비틀어 버리고 싶은 충동이 강하게 이니까 말이야."

"아주 과격하시군요, 레..."

제임스는 하던 말을 황급히 멈추고는 노마법사들을 돌아보았다.

"부하들을 적당히 회피시켜라. 그들을 저 위대하신 드래곤 슬레이어 일행과 부딪치게 만들어. 결과를 두고 보기로 하지."

제임스는 일부러 타론 일행을 '위대하신 드래곤 슬레이어 일행' 이라고 부르며 비꼬았다. 제임스는 약간 늦게 도착해서 시작 부분은 못봤지만, 타이탄들이 드래곤을 때려잡는 모습은 보았다. 그래서 그 정도 드래곤은 드래곤이라고 부르기도 아깝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알겠습니다."

노마법사는 제임스의 지시를 듣고 마법의 힘을 이용해 재빨리 몸을 띄워 올렸고, 나뭇가시 위쪽으로 사라져 버렸다.

"우리도 이동하는 것이 좋겠군요. 잘못하면 성기사들에게 포착되어 쓸데없는 싸움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제임스의 말에 다크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동하자."